

Market Index / 7일

코스피지수 ▼ 1909.71 -7.79

코스닥지수 ▲ 564.64 +13.14

유가(WTI, 달러) ▼ 53.63 -1.06

환율(원)

1USD 1236.26 / 100¥ 1163.59

팔매 1193.74

1EUR 1387.01

1CNY 180.40

팔매 1332.89

1332.89

# 관광사업체 60% “2년간 신규채용 계획 없다”

제주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영향분석 결과 충격 완화 정부 지원책에 세계혜택 확대 1순위 꼽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도내 관광사업체 5곳 가운데 3곳 앞으로 2년간은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관광사업체 대부분은 주 52시간제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영에 더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7일 한국여행업협회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최근 발간한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여행업, 호텔업, 유원지업 등 전국 503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에서 전체 기업의 72%가 ‘향후 2년 내에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제주지역 관광사업체 중에서는 60%가 채용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응한 도내 관광사업체는 모두 30곳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사가 구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평균가격이 변동됐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도내 업체의 46.7%가 ‘상승했다’고 답했다. 이는 전국 평균(25.6%)보다

가깝게 나타났다. 또 도내 사업체 중

금인상이 인력 감축이나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사항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도내 업체의 60%가 인력 감축이나 고용 감소가 가장 우려스럽다고 답했고, 이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신규 투자 위축(30%), 인건비 부담에 따른 도산(26.7%), 임금 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 관리 어려움(20.0%)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도내 사업체 중 가장 많은 36.7%가 ‘신규 채용 축소로 대응했다’고 답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전국 평균(25.0%)과 견줘도 11.7% 포인트 높았다. 또 도내 사업체 중 13.3%가 최저임금 인상 후 기존 인

력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 세계 혜택 확대(46.7%)가 1순위로 꼽혔다. 이 밖에 카드수수료를 인하를 바라는 곳도 도내 관광사업체의 33.3%를 차지해 비교적 높았다. 또 도내 관광사업체는 근로시간 단축(20.0%)보다는 최저임금 인상(60.0%)이 경영에 더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20%는 어느 것도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도내사업체 중 21.4%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었으며 올해 4월 기준 도내 관광사업체 종사자의 평균 근로일수는 5.1일, 주당 근로시간은 42.6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주간 재테크 핫 이슈 포치와 환율전쟁

## 연준 금리인하·포치 진행이 변수

미국정부는 1992~1994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관찰국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환율 조작국의 지정조건은 1년 동안 200억 달러를 초과한 대미 무역 흑자, GDP 대비 3% 초과하는 경상 흑자 그리고 일반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조건 모두 부합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첫번째 조건만 부합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8월 5일 중국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포치)하면 위안화 가치가 지난해 저점 대비 10% 이상 절하됐다. 이 상황이 정부 당국의 위안화 약세 개입 의도로 판단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고 가려는 모습이 보인다. 중국은 몇 년 동안 7위안 유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보였다. 이는 무역분쟁에서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의의이기도 했다. 자국 통화의 절하를 막으면서 환율로 인한 미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포치가 나타났다는 것은 중국 당국이 강경책으로 선회했다는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국경기가 확장되고 무역협상이 타결되어야 하는데, 지금 무역협상은 장기

## 위안화 달러당 7위안 돌파에 금융시장 ‘흔들’ 무역분쟁 키포인트 기존 관세서 환율로 전환

중국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자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 글로벌 금융증시가 크게 흔들렸다. 이렇게 크게 흔들리게 된 것은 단순히 위안화 약세뿐만 아니라 7위안이 가지게 됐던 그리고 7위안 돌파(포치)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7위안은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자본유출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다. 언제나 신흥강국의 경제위기는 일본과 같은 버블붕괴나 아시아에서 발생했던 유동성문제 때문이었는데 둘 다 자금의 급격한 유출이 문제였다. 긴축통화국의 경우엔 유동성에서 문제가 시작됐다. 세계 금융시장이 붕괴했지만 금융정책은 국가별로 분리돼 있기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러한 자본유출에서 중국도 자유롭지는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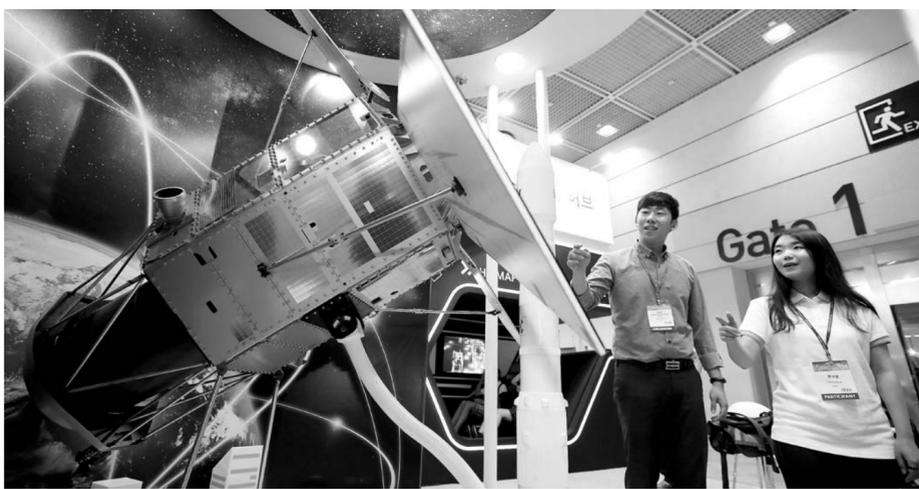
그런데 올해 포치는 작년이나 지난 2015년과는 다르게 위안화에 대한 공격 또는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중국 증시 역시 상당히 견조한 모

호되고 미국 경제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강경책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포치는 그동안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던 미국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초조해지고 7위안을 돌파했음에도 중국 증시는 견조하면서 이로 인해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결과로 보여진다. 그렇기에 증시에서는 무역협상 확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지고 있다.

향후 무역분쟁의 키포인트는 기존의 관세에서 환율로 넘어가게 됐다. 이제 중요한 건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도 중국정부가 환율 약세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시킬지에 따라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 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



우리나라 최초의 국토관측위성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국토관측위성을 살펴보고 있다.

3개 국면으로 나뉜다. 또한 이를 1~4 단계별로 세분해 주택사업의 환경에 따른 전망치를 보여주는 지표다.

제주의 7월 HBSI 실적은 42.8(전국평균 73.2)로 강원(38.0)·충남(40.9)·충북(42.8)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이다. 8월 HBSI 전망치 역시 47.6(전국평균 68.2)으로 충북(47.6)·충남(47.7)과 함께 바닥을 치고 있다.

제주지역의 7월 채담경기점수는 전국 대부분 마이너스(공격적 주택사업)를 보인 것과는 달리 +11.3을 기록, 보수적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전국 HBSI 전망치는 68.2로 지난 7월에 견줘 10p 하락하며 70선이 붕괴됐다. 대전(96.2)·광주(96.5)·세종(92.3)만 90선을 유지하며 주택사업경기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나머지 일부 광역시를 비롯해 지방 전지역의 8월 전망치는 40~50선을 지속하며 주택경기 약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침체된 주택경기에 대해 정부의 주택규제 강화기조 지속,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계절적 비수기가 겹치면서 주택사업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백금기자 haru@ihalla.com

# 제주, 날씨는 더운데 주택사업은 ‘냉랭’

8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 47.6으로 바닥 주택산업연구원 “비수기 겹쳐 부정적 인식 확대”

제주지역의 여름 날씨는 연일 열대야를 기록하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반면 7~8월 도내 주택사

업은 여전히 냉랭한 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7월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8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8월 HBSI는 하강국면 3단계(25~50미만)로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HBSI는 0~200으로 표현하며, 지수구간은 상승(115~200미만)·보합(85~115미만)·하강(25~85미만) 등

하귀2리	서흥동	유수암리	연동1.5름	토산리(급매)	와흘리	고산리
자연녹지(전) 일주도로점 223㎡ 바다, 한라산조망 2억2천	호텔 25실 해안도로점 전 객실 바다뷰 34억5천	계획관리(전) 2차선점할 400㎡ 오수관공사중, 다용도부지 1억7900만	마리나호텔사거리 인근 10층 중 7층 로열층 남향, 위치좋은 1억5200만	계획관리(과수원) 4m도로점할, 4056㎡ 건축가능토지 5억1천	계획관리(전) 전원주택부지 951㎡ 현과수원사용, 건축허가득 3억4500만	계획관리(전) 자연취락지구 731㎡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 4억4600만

등록번호: 제 50110-2017-002100호 대표공인중개사: 노진업 위치: 연북로 606, 3층

**제주향 공인중개사 064-723-8850 010-4692-0952**

등록번호: 가 4402-408 대표/공인중개사 박완희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726-4585 010-8660-1263**

<b>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b>	<b>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2,500㎡ 건 400㎡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1600㎡, 건 160㎡</b>
•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 서귀포 범항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 삼도1동 2층 주택 대 165㎡, 건 150㎡
•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 애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점)
•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득)	•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 한경면 저지리 전 (11,000㎡) 계획관리지역

신제주로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문복

**동부공인중개사 010-2800-4595 064-747-5115**

<b>※기념해안도로점 2474㎡ 15억원</b>	<b>※하례5.16도로동축과수원 8856㎡ 11억원</b>	<b>※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억</b>
• 해안동마을 맹지 대674㎡/매기50㎡ 5억	• 아라동기차촌내 1090㎡ 9.24억	• 선술검은오름 북측 주택부지 1002㎡ 2.2억
• 해안동 생관림(목장) 맹지28,842㎡ 6억	• 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000만원	• 신촌 2중주거지역 대 157㎡ 1.7억
• 상명리 조림식주택60㎡/대430㎡ 1.5억	• 고성외고인근2차선점 대지조성 481㎡ 6.59억	• 우도하고수동해수욕장인근 10,323㎡ 12.59억
• 수산동 저수지인근 카페음영관광호 620㎡ 3.1억	• 유수암 2차선 변 주택착공 토지 519㎡ 2.5억	•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9억
• 판포 바다경관 곳 자연녹지 3028㎡ 6.49억	•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	• 오리정실 마을내 587㎡ 7.659억

**양복점 제일사의 약속**

모델비례 체형맞춤정장

30년 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http://www.cheilsa.co.kr>

제주시 이도이동 1180-12 TEL: 722-0914 FAX: 722-9098

최고급복지	맞춤정장	100만	40만
고급	"	80만	35만
보통	"	35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복비	60만	30만
고급	"	4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바지	25만	12만
고급	"	15만	8만
보통	"	0만	6만
와이셔츠	맞춤셔츠	8만	5만

영역시간: AM 9시 ~ PM 9시 영영영 영영영

NAVER 제일사